

맥류 광산파 파폭에 따른 출현율 및 수량성 차이

안승현^{1*}, 배희수¹, 정한용², 최인배¹, 장현수¹, 김육한¹, 윤종탁¹

¹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²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서론]

현재 맥류 재배방법이 맥류 재배농가와 기존 표준재배법 간에 차이가 많고 농가 간 수량차가 큼에 따라 광산파 파폭에 따른 출현율과 수량성 차이를 알아보려고 본 시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전북 부안군 백산면 농가 답리작 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였고, 시험품종은 큰알보리1호(겉보리), 흰찰쌀보리(쌀보리), 금강(밀)으로 2017년 10월 27일에 파종하였다. 광산파 파폭은 150cm, 180cm, 210cm로 처리하였고, 기타 재배법은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부안 포장 기상자료, 파폭에 따른 출현율과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부안 포장의 기상은 월동기~생육재생기에 평균기온이 한파로 평년보다 낮았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으나, 2월 하순부터 수확기까지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였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았다. 출현율, 수수 및 수량은 파폭 150cm에서 최대였고, 파폭이 클수록 출현율, 수수 및 수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파폭이 클수록 복토 깊이가 얇아져 맥류 입모에 필요한 환경이 불리하였고, 월동기 한파에 따라 수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254702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63-238-5274, E-mail. shahn94@korea.kr